

社說

抱川市 도시계획

오는 2020년을 목표로 하는 포천도시기본계획(안)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3일 포천시청 소회의실에서 포천도시기본계획(안) 보고회를 갖고 포천의 도시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호/제19조 및 동시행령 16조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건교부)에 따라 포천시장이 입안권자로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고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미래상 정립은 물론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계획수립에 나선 것이다. 도시계획의 성격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법정도시계획, 계획내용에 일반시민에게 법적구속력이 없는 예비적 도시계획이며 종합계획으로서 사회·경제부문의 정책표명 및 물적부문의 골격계획이자 20년 장기계획으로 향후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도시계획 수립의 배경은 선 계획-후개발의 원칙에 의한 종합계획으로 일원화하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통합관리하고, 주민의 참여확대를 통한 상호시 계획으로 전환한다.

또 남북통일에 대비한 총격수지 대비로서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점진적개발방식에 의한 개발활성화가 예상되며 남북지역과 대비해서 낙후된 지역실정과 남북지역 개발압력이 북부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개발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서울북부지역의 중계관문으로서 남북한 교류시 중요한 역할 담당 및 개발확산에 따른 파급효과를 수용 가능하며 도농복합시로의 승격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도시개발에 대한 기대감 확산과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 증대, 주5일제 근무 등으로 인한 수도권 북부지역 관광자원의 활용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북부지역의

중심도시로서 기능하기 위해 전략사업의 검토 및 적합한 사업시행 방안을 토대로 포천시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도시기본계획(안)은 도시공간을 개발축과 보전축으로 설정하고 개발축에는 도시개발축과 관광개발축으로 구분해 도시계획수립키로 했다.

아울러 생활권 계획은 포천대생활권으로 남부중생활권과 북부중생활권으로 나누고 남부중생활권은 포천도심권과 소흘권으로 나누고 북부중생활권은 영북권과 일동권으로 나눈다.

포천도심권은 포천동, 선단동, 신북면, 근내면, 소흘읍, 소흘읍, 가산면, 내촌면, 영북권은 영북면과 영중면, 창수면, 관인면, 일동권은 일동면과 이동면, 화현면이 포함된다.

포천도심권은 주거, 상업, 교육, 문화, 행정, 농업기능을 하는 지역으로 하고 소흘권은 주거, 상업, 관광, 농업기능, 영북권은 주거, 상업, 산업, 관광, 농업기능, 일동권은 주거, 휴양, 관광, 위락, 농업기능이 가능한 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계획인구는 영북권 6만명(현재 2만6천명), 일동권 4만명(현재 2만2천명), 포천도심권 14만명(현재 5만6천명), 소흘권 11만명(현재 4만8천명)으로 계획하고 있다.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지의 경우 2005년도에 8.55km²에서 2020년에는 24.90km²로 상업용지는 2005년 0.64km²에서 2020년 2.30km², 공업용지는 2005년 0.30km²에서 2020년 2.98km², 관리용지는 2005년 20.79km²에서 2020년 47.74km², 근린공원은 2005년 1.62km²로 2020년까지 유지키로 했다.

포천시가 의욕적으로 마련한 도시기본계획(안)이 인근지역과의 연계성을 무시한채 독립적 섬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균형잡힌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5만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참여정부의 혁신은 발상의 전환으로 시작”

허성관 행자부장관 대진대 초청특강서 밝혀



허성관 행자부장관이 대진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은 “참여정부의 혁신은 발상의 전환과 지금까지 했던 것을 복습하는 것으로 출발해 건전한 비판을 수용하는 것과 시간과 돈, 사람을 덜 투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허 장관은 11일 오후 7시 대진대학교 사회과학관 5층 멀티미디어실에서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생과 박기춘 국회의원, 최태중 포천시의회위원장, 변진수 포천교육장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혁신의 전략과 이해라는 주제로 실시한 특강에서 이같이 밝

혔다.

허 장관은 참여정부 혁신을 위한 발상의 전환에 대해 수해복구 방식에 있어 ‘선복구 후지원’의 기존시스템을 ‘선복구 후지원’로 바꾸자 수해복구 기간이 50일 이하 빨라졌다는 사실을 예로 들었다.

또 기존에 했던 사업을 전부 복습하는 방안으로 3M(회사)가 면도할 때 쓰는 거칠거칠한 거품을 30년 전에는 문화가 맞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다가 30년 후 자동차 보급이 대중화되면서 자동차 광택제로 실시한 특강에서 이같이 밝

로 들었다.

특히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경우는 국민의 이해부족이나 법규 잘못 등이 원인이며 이 같은 사례를 찾아본 결과 수백건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또 참여정부의 혁신은 건전한 비판을 수용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와 토론을 벌이다 보면 해법이 나온다고 건전한 비판과 토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은 시간과 돈과 사람을 덜 투자하는데 있다며 반상회 업무에 남성 직원 대신 기능직 여성직원을 배치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 장관은 민간기업에는 이러한 혁신의 사례가 많지만 공공기관에서는 매우 힘들게 나타나는 게 현실이라며 공공기관의 혁신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특강은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에서 초청해 이루어졌으며 이날 허 장관과 동행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박기춘 국회의원(남양주)은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에 재학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이철우 국회의원 2004 국정감사 활동

상임위별 국감 우수 위원 선정

지난 12일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열린 우리당 이철우 의원은 “쌀 품종중 지명도가 있는 오대벼의 경우 경기북부와 강원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지만 이 품종은 육성된지 이미 20년이 넘었다”며 “최근의 생육 환경 변화로 오대벼 생산량이 일률적으로 줄고 있는데 농진청에서는 왜 신오대벼, 뉴오대벼 품종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냐”고 질책했다.

또 지난 1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철우 의원은 “전남은 전국에서

“임업인 4천만원 이상 빚 29% 정부 정책 탓”

이철우 국회의원 임업인 1040명 조사결과 밝혀

우리나라 임업인들의 67.5%가 ‘정부가 임업정책을 잘못해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임업인의 62.4%가 우리나라를 ‘임업 후진국’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분할매각한 임업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로 62.3%가 ‘독일’을 꼽았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철우 열린우리당 의원은 우리나라 임업인 1040명을 직접면접 형식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임업인들은 정부가 추진해 온 임업정책에 대해 ‘잘못하는 편이다’(50.6%) ‘매우 잘못하고 있다’(16.9%)라고 대답해 대상자의 67.5%가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62.3%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독일의 국·공유·사유림을 직접 또는 위탁관리하는 산림통합관리제”를 들었으며, 이어 25.7%가 “일본의 산림장비 지역 활동 지원 교부금제도”라고 답했다.

응답자 중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이는 24.8%에 그쳤고 61.8%는 부업으로 임업을 하고 있었다.

현재 임업인들 중에는 15%만이 ‘부채가 없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응답자 중 4000만원 이상 부채를 진 경우가 29.4%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74.5%가 ‘자녀들에게 임업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으며 국가가 해주어야 할 시급한 과제로 47.2%가 ‘소득증대 사업의 활성화’를 지적했다.

응답자들의 연령을 보면, 중 40대·50대가 각각 22.9%, 25.8%였으며 60대 이상이 26.6%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림소유자는 2002년 말 기준, 2백16만명이며 이들 대부분(96.5%)이 10ha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우 의원은 “이번 설문 조사를 통하여 농업이 소외받았듯이 임업도 소외받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됐다”며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앞으로 임업인들을 위한 정책에도 많은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신문 조사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

“포천신문이 정론지로서 전국최고의 지역신문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 역할” 강조



포천신문 조사위원회(위원장 장인화)가 불우이웃돕기 창구 개설 등의 인건을 토의하고 있다.

포천신문 조사위원회(위원장 장인화)가 14일 오후 7시 포천신문 대회의실에서 조사위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례, 장인화 조사위원장 인사말, 최호열 발행인 인사말, 신일 조사위원 위촉식, 정관심의, 토의안건, 기타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장인화 조사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사위원회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초기 준비단계에 있다”며 “위원 상호간의 화합

과 단결을 바탕으로 포천신문이 정론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호열 발행인은 인사말에서 “포천신문은 지난 4년 동안 한번도 빠짐없이 10일 간격으로 지속적인 발행을 통해 포천지역 사회여론을 담보하고 때로는 지역여론을 계도하며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제 조사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신문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의 안건은 ‘365일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창구’ 개설과 이웃돕기의 활성화를 도모키로 결의하고 포천신문 조사위원들이 1인당 5부 이상 구독신청을 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날 신규로 위촉된 조사위원은 모두 14명이며 지역에서 활발하게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에 나서고 있는 인물들로 알려져 있다.

이날 정관심의를 통해 조사위원들은 포천신문이 전국 최고의 지역정론지로서 건전하게 발전하는데 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사를 취재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미담을 제보하는 등 포천신문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봉사과 동시에 위원회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되 만장일치로 합의하기로 했다.

한편, 포천신문 조사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는 오는 12월10일 오후7시에 개최할 예정이며 12월17일은 포천신문 가족 송년회로 모두 참석키로 결의하기도 했다.

포천신문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 감사 3인, 총무 1인, 부총무 3인, 음·면·동 지부장 각 1인, 고문 약간명 및 상임고문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포천신문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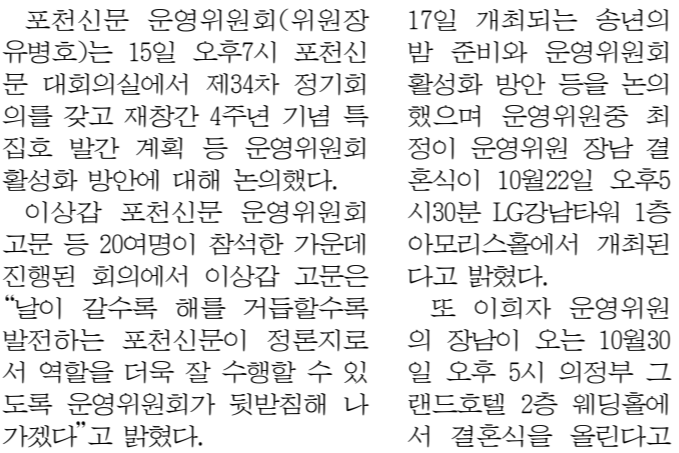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정치활동 동향

- 이철우 국회의원**은 18일 농협중앙회에서 실시된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협 자회사 책임경영시스템 도입과 전국에 1천34개가 난립하고 있는 쌀브랜드를 소비자중심의 파워브랜드로의 육성을 당부했다.
- 박윤국 포천시장은** 14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열린 “2004년 소득작목 결과평가회”에 참석해 지역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 최태중 포천시의회회장은** 12일 대진대학교에서 열린 JC회장기 어린이 축구대회에 참석해 기쁨으로 축구공을 나눠주는 등 대회 준비에 힘쓴 JC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으며 참가 초등학생들의 선전을 기원했다.
- 오병익 경기도의회경계지구위원장**은 18일 경기도 수원에서 개최된 경기벤처 창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경기도 중소기업센터에서 주최한 일자리 창출 세미나에 참석해 현안에 대해 토의했다.
- 이상만 경기도의회회장은** 17일 운악산 광장에서 개최된 제3회 운악산 단풍축제에 참석해 행사를 준비한 화현면 주민들을 격려하고, 운악산이 포천의 명산으로 거듭나기 위해 잘 가꾸고 보전해 주길 당부했다.
- 김영대 포천시의회회장은** 13일 포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도시기본계획 보고회에 참석해 포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획이 갖는 문제점 및 타당성에 대해 동료의원 및 시 관계자들과 토의했다.
- 이천목 포천시의회회장은** 15일 포천시청에서 개최된 포천전주철 호도산산업육성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구절초를 이용한 향토제품 개발 및 홍보전략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관련 참가자들과 심도있는 토론을 나눴다.
- 김영오 포천시의회회장은** 19일 포천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포천시택시노동조합 체육대회에 참석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택시 운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이강림 포천시의회회장은** 19일 포천동사무소에서 개최된 포천동 통승령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주민들을 격려하고, 포천동이 포천의 중심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천신문 운영위원회 제34차 정기회의

재창간 4주년 기념 특집호 발간 계획 등 논의



포천신문 운영위원회(위원장 유병호)는 15일 오후7시 포천신문 대회의실에서 제34차 정기회의를 갖고 재창간 4주년 기념 특집호 발간 계획 등 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상갑 포천신문 운영위원회 고문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 이상갑 고문은 “날이 갈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는 포천신문이 정론지로서 역할을 더욱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가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호열 포천신문 발행인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개월 동안 자문위원회와 조사위원회, 주부병에게자단, 학생들에게자단 등이 활발한 활동을 통해 신문사 발전에 건전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강조하고 “운영위원회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역발전의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는 오는 12월



17일 개최되는 송년의 밤 준비와 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운영위원장 최정기 운영위원 장남 결혼식이 10월22일 오후5시30분 LG강남타워 1층 아모리스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또 이회차 운영위원의 장남이 오는 10월30일 오후 5시 의정부 그랜드호텔 2층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공지했다.

특히 영북면에서 승화식품을 운영하는 김택근 운영위원이 제8회 산정호수 명성산 역사꽃 축제 현장에서 수품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 전액을 관내 소년소녀가장에게 전달하는 훈훈한 사연도 함께 나누기도 했다.

19일에 개최키로 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출신 이진모 대령, 준장 진급

“국가와 군 위해 더욱 정진할 터”

지난 15일 정부가 단행한 군장성 인사에서 포천 출신인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환경과장 이진모 대령이 준장으로 진급했다.

삼사 12기 출신인 이진모 대령은 포천시 근내면 명산리에서 태어나 포천중학교(제16회)·의정부중고(21회)·명지대학교·동국대 석사(사회복지학) 과정을 마쳤다.

이후 78년 대통령 경호실 66특전대대를 시작으로 사단·군단 군수참모를 거쳐 전·남북지역 군수지원단장을 역임했으며 200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육본 군수참모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진모 대령은 이날 진급 소식을 접한 후 “계급이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책임감이 무겁다”



등록번호 경기 다 5007 2000. 8. 18 등록 **포천신문** http://www.ipcs21.com

발행처: (주)한국정보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 B/D 1번 구독료 48,000원

사훈: 주인의식(主人意識) 정론직필(正論直筆) 문화창달(文化暢達)

편집국 (031)542-9776 발행인 겸 대표이사 최호열
 기사재보 (031)542-9888 편집인 구봉주
 광고접수 (031)542-9889 편집국장 김영복
 구독신청 (031)541-9115 인쇄인 김규석
 F A X (031)541-9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주간신문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한다.